

이스타, 노딜에도 임시주총 강행... '소송 명분쌓기' 해석

정관 변경·신규 이사 선임 계획
제주항공 없이 안건 상정 불가능
6월, 7월 임시주총처럼 무산 전망

이스타항공이 임시 주주총회를 그대로 진행하면서, 제주항공과의 소송전을 위한 '포석'을 준비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9일 강서구 방화동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정관 변경안과 신규 이사 및 감사 선임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는 제주항공과의 M&A(인수합병)가 무산되기 전 소집한 임시 주총으로, 제주항공에서 해당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하지 않으면 안건 상정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 주총도 지난 6월과 7월 열렸던 임시 주총처럼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최근 들어 사실상 재매각



이스타항공 노동조합이 8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타항공 임직원 605명이 해고된 데 대해 정부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이 임시 주총을 그대로 여는데 대한 '명분 쌓기' 용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 7월 23일 제주항공이 주식매매계약(SPA) 해제를 선언하면서 매각이 무산된 바 있다.

그런데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과의

M&A 과정에서 지속 연기돼 왔던 임시 주총을 인수 무산 후에도 그대로 진행하는 배경에 향후 소송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것이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M&A는 '노딜'로 끝났지만, 양사 간 자금 관련

문제는 아직 남아있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해 12월 18일 이스타홀딩스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이행보증금으로 115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또한 제주항공은 자금난을 겪고 있던 이스타항공에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100억원을 대여했다. 이에 따라 향후 양사는 이행보증금과 대여금 등 총 215억원의 반환 여부를 두고 소송전에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임시 주총에 대해 "일단 진행한다"며 제주항공의 후보 추천을 기다리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 7월에 계획했던 임시 주총이라, 지금까지는 그렇다. 특별한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 준비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 대비 중인데 아직 소송을 시작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제주항공 관계자는 소송 준비 여부와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입을 닫았다.

이런 가운데 이스타항공은 재매각을 위해 지난달 18일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율촌, 흥국증권 등 매각 주관사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 우선협상 인수 기업을 선정하고, 내달 중 M&A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이스타항공 측에 인수 의사를 나타낸 곳은 기업 4곳과 사모펀드 등을 포함해 10여 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재매각에 앞서, 조직 슬림화를 위해 지난 7월 정리해고 대상 직원 중 동점자와 휴직자를 제외한 605명에게 이 같은 사실을 개별 통보했다. 이들의 정리해고 시점은 내달 14일로, 내용증명 등기발송 등의 절차를 고려해 당초 예정된 내달 6일보다 일주일가량 늦춰졌다. 이스타항공은 남은 직원 총 590명으로 재매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샤오미 "정직한 가격은 우리의 임무"

10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전년·완벽주의 등 미래성공전략 제시
3만원대 미밴드5 등 새로운 제품 공개

샤오미가 10주년을 맞아 '정직한 가격'을 향한 각오를 다시 한 번 다졌다. 새로운 제품을 공개하며 발전을 향한 의지도 굳건히 했다.

샤오미는 8일 온라인을 통해 '프롬 10 투 인피니티'라는 주제로 10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를 진행했다.

샤오미는 행사에서 그동안 '정직한 가격은 우리의 임무'라는 철학으로 품질 좋고 저렴한 제품을 내놓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회고했다. 운영 체제인 MIUI와 첫 플래그십 스마트폰 Mi1, 그리고 최근 세계 최초로 출시한 투명 OLED TV인 '샤오미 미 TV 렉스'를 소개하며 혁신을 위한 노력을 설명했다.

미래 성공 전략도 제시했다. 인터넷 시대 성공비결로 ▲전년 ▲완벽주의 ▲입소문 ▲민첩성을 들며 인터넷 제조 공정에 투자해 제조 원가를 줄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에 대한 이유와 앞으로 10년간의 계획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티븐 왕 샤오미 동아시아 총괄매니저가 10주년 기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샤오미 영상 캡처

새로운 제품도 공개했다. 미밴드5가 전면에 섰다. 더 커진 1.1인치 AMOLED 디스플레이에 마그네틱 충전, 렉스부터까지 기록하는 수면 모니터링 등 건강 기능과 'PAI' 활동 지수 등 기능을 대폭 추가했다. 출시 가격은 3만9900원이다.

미 트루 와이어리스 이어폰2 베이직도 선보였다. 20시간 사용 가능한 배터리로 통화중 노이즈 캔슬링, 터치 컨트롤 등 고급 무선 이어폰에 탑재된 기능을 대부분 탑재했다. 그러면서도 출시

가격은 3만2800원이다.

샤오미는 "6분의 1 가격에 비슷한 경험을 느껴봐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자동페어링과 보이스 어시스턴트 등 기본 기능만 제공하는 TWS2는 1만8800원에 불과하다.

샤오미는 포토 프린터도 새로 공개했다. 소형 사진을 출력할 수 있는 제품으로, 전용 인화지를 활용해 1회 충전당 20장 출력 가능하다. 가격은 6만9900원으로 기존 시장 제품 절반 가격 수준에 불과하다. /김재용기자 juk@

KT, 윈스톱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원격 수업에 필요한 기능 통합제공

KT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서울 소재 11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학기 학사 기간 동안 무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KT가 구축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은 실시간 화상 수업을 진행하거나 수업 교재 제작 및 관리를 비롯해 출결이나 과제 등 학사 관리까지 원격 수업에 필

요한 모든 기능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최초의 윈스톱 통합 플랫폼이다. 기존에는 원격 수업 도구들이 가능별로 나뉘어 제공돼 여러 플랫폼과 서비스들을 혼합해 활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수업 교재 제작 및 관리, 출결 및 과제, 학사 관리 등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KT는 이에 앞서 교육 일선 현장을 찾아 교사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원격 수업에도 참관하며 비대면 온라인 교육 관련 현장의 목소리와

대외 현안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LMS(학습관리시스템)와 연계된 수업 관리, 쉽고 편리한 교육 콘텐츠 제작 도구, 안정적인 품질의 온라인 교육 환경, 파편화된 온라인 교육 서비스들의 통합 등 교육 현장 요구 사항들을 서비스 기획 단계에서 최우선으로 반영했다.

교사들은 '나의 교실'에서 시간표 관리, 수업 과제 등록, 출결 관리 등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교재 라이브러리'에서 직접 교육 콘텐츠를 손쉽게 제작하거나 VOD 교재들을 시간표에서 연동해 등록할 수 있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

격변하는 배달앱... 쿠팡이츠, 성장세 뚜렷

후발주자 성장에 시장 구도 변화

배달앱 시장 경쟁이 치열하다. 후발주자의 성장으로 오랜 기간 지속된 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의 3강 구도가 깨지면서 배달앱 시장 구도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8일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8월 한달간 쿠팡이츠의 사용자 수는 74만8422명으로 지난해(17만4057명) 대비 4배 증가했고, 위메프는 지난해 8월 2만3672명에서 17만5414명으로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배달 수요가 증가하면서 배달앱 후발주자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쿠팡이츠의 성장세가 무섭다. 8월 월간 순 사용자(MAU) 70만을 돌파한 쿠팡이츠는 7월부터 신규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2위 요기요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쿠팡이츠의 1인당 월평균 앱 사용 시간은 배달의민족에 이어 2위를 기록하면서 이미 요기요를 뛰어넘은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사용률을 확인할 수 있는 총 설치 기기 대비 사용자 수는 배달의민족이 81.41%로 1위를 차지한데 이어 위메프 63.23%, 쿠팡이츠 61.03%, 요기요 59.59%로 2~4위 간 경쟁이 치열한 모습이다.

배달의민족은 8월 앱 사용률, 사용시간, 사용일 등 모든 부문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 사용자 수에서는 요기요와 약 2배 차이를 보인다.

한편, 배달 앱 시장 8월 사용자 수 순위는 1위 배달의민족을 이어 요기요, 쿠팡이츠, 배달통, 위메프 순으로 나타났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LGU+, 'USIM 없는 통신모듈' 상용화 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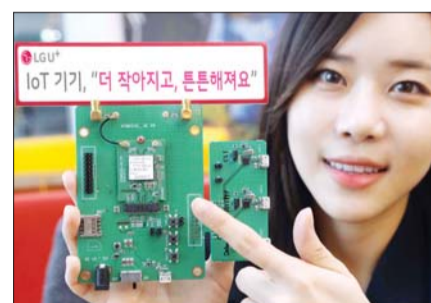
실제 디바이스 적용 발판 마련

'USIM 없는 통신 모듈'이 세계 최초로 통신사 상용화 인증을 마쳐, 실제 디바이스에 적용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LG유플러스는 국내외 통신 개발사와 손잡고 SIM(사용자식별모듈) 카드 없는 통신 기술 'iUICC(통합 USIM)'에 대한 상용화 인증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동통신사가 'iUICC' 기술을 인증한 것은 세계에서 처음이다.

LG유플러스는 소니 그룹의 통신 칩셋 개발 전문 계열사 소니반도체체이스라엘, 국내 통신 모듈 개발 전문 회사인 엔티모아, SIM 및 보안기술 분야의 글로벌 회사 G&D와 함께 USIM 내장 기술 'iUICC' 기반의 통신 모듈을 개발하



LG유플러스가 'USIM 없는 통신모듈'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다. /LG유플러스

고 서비스 인증을 마쳤다.

LG유플러스는 이번 iUICC 기술을 NB-IoT, LTE-Cat.M1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IoT 디바이스에 선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옥외 상태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한 원격 검침이나, 소형화가 필요한 위치트래커 등 디바이스에 적용을 검토 중이다.

/채윤정 AI전문기자